

## 자립과 온정

오늘은 경제적인 불안의 우울함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가난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갈등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인 악은 가난을 이겨 나가려 하는 데서 비롯되는 일이 많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한 가족이 모두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소극적인 절망과는 정반대로 생존경쟁 속에 뛰어 들어가서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부정한 수단으로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수사건, 탈세사건, 부동산 사기사건, 뇌물을 주고 받는 사건들이 빈번히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털어 본다면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적으로 남보다 잘 살아보자는 데서 비롯된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에 앞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일생을 끝마치는 것을 위해 싸우는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

입니다.

일전에 작고한 토인비교수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정신적 과제로서의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은 결국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사상이념과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공산주의 유물론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이 소중한 것이냐, 아니면 집단으로서의 인간 권력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족하고 행복스럽게 살 수 있는 정치체제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대결이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인비는 이 글의 결론에서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가 그 역사적인 제도나 도그마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관의 핵심으로 삼지 않으면, 공산주의 이념과의 대결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한국이야말로 토인비교수가 지적한 이러한 두 개의 이념, 즉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가치관, 또 공산 유물론적인 체제의 결전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유물론적인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물론이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유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즉 우리 사회 안에서 싹트고 있는 유물주의 즉 물질만능주의를 이겨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밖으로부터 밀어닥치는 유물주의보다 우리 안에 있는 유물, 즉 금력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무서운 독소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위주의 사고 방식을 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부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흥이나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가치관의 확립이 경제활동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며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확립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은정주의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가난의 극복에 있어 가장 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정을 베푸는 측이 교만에 빠지게 되든지, 자기들의 죄책감을 스스로 달래는 일이 되며, 온정을 받는 쪽의 예속과 의타심을 조장해줌으로써 만성적인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의 기독교에서 하는 봉사나 이웃사랑이란 구제활동은 이러한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당장 생활고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온정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것대로 자선을 베푼다는 뜻도 있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써 다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오랜 봉사활동의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제사업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도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하고 억눌린 생활을 하게 된 사회적인 여건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억압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여건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을 낳게 하는 사회적인 여건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임시적인 구제사업만 해도 별다른 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난의 원인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 속에 있거나 았나 하는 것입니다. 가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게으름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생활 때문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부자가 되려

다가 도리어 실패하여 또는 낭비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나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만 우리도 때로는 감상적으로 가난 자체를 절대화하는 폐단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만성적인 가난을 더 조장하는 역설적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애고이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가난의 애고이즘이 더 가난을 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회를 패쇄적으로 만들어서 가난을 극복할 만한 합리성과 개방성을 배척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의 악순환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을 낳게 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재건할 것을 촉구해야 하겠습니까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애고이즘, 배타성, 비합리성을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 주고 가난을 극복하고 억눌린 사람들로 하여금 해방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 : 1~2)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결코 달콤한 말로 회유하는 일이라든지 임시적인 위로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결국 인간의 일을 도로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 자기의 일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빼앗겼던 일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영혼, 민족혼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권력자의 횡포와 가진

자들의 열매기 작전에 말려들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민족의 열을 지키는 일은 믿는 자에게 맡겨진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을 빼앗긴 자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열을 잃어버린 민족은 언제나 남의 힘에 예속하는 민족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열은 찬란한 매스컴에 의해 전달되는 열빠진 말들의 난무 때문에 열떨떨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을 지키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피눈물나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갈등과 좌절, 때로는 실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현실과 타협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적당한 처세로서 무사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자진해서 들어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 같기도 합니다. 남의 비위는 상하지 않게 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귀에 거슬리는 일이나 말은 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대저 나 여호와와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잘 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이사야 61:8)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열)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여 위의 겹옷으로 내게 대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느니라」 「땅이 짝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이사야 10:11)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찬양으로 끝난 대목입니다.

옥중에서 내가 감명깊게 읽은 책은 황석영(黃皙暎)의 단편

집 「객지(客地)」였습니다. 거기에 「〈입석부근〉(立石附近)」이라는 단편의 나라는 주인공과 택, 영혼의 세 사람이 한 발씩 끈질긴 집념으로 등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은 자일·툭·앵커를 써가면서 절벽으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합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등산에서 주인공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붙어야 할 바위의 모양을 살펴 보았다. 굴뚝처럼 비좁은 침니 절벽이 계속되어 있다. 그것이 끝난 뒤 오른쪽으로 새로운 코오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처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궁둥이를 뒷벽에 대고 앞벽에 다리를 버티었다. 한발 두발 옮겨 가면서 속으로 천천히 수를 세었다……

이런 끊임없는 집념이 위로 또 위로 내 몸을 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 속에 앉아서 자신과 이야기한다거나 사교장에서 지껄이고 있다거나 시장에서 떠들어대거나 하는 것의 대부분은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들의 관념과 말이 가지는 그 무의미한 허구에서 빠져나와 분명하지는 않지만 꼭 우리 속에 용해될 수 있는 자연의 품 안이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동이나,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온갖 장애와의 순수한 투쟁 안에서 무언으로 해방될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허구 속에서 벗어나 노동과 생존경쟁 속에서 해방을 맞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이사야는 구원의 웃을 입으며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목표를 그곳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며 찬미를 하는 기쁨과 감격의 생활이 되며 현실의 길고와 속박에서 해방을 맞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1975년 가을 YWCA 실무자초찬기도회)